

# 고용보험 가입 둔화 지속... '제조업' 반년째 ↓

## 27만2천명 증가...반짝 반등하다 2달 째 내리막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6개월째 순감...건설업도 ↓

고용보험 가입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은 사실상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 순감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행진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만2000명(1.8%)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선 뒤 연일

증가해 1528만1000명이다. 하지만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7만3000명→8월 36만2000명→9월 35만9000명→10월 34만2000명→11월 33만5000명으로 줄다 12월에는 29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통계에서 34만1000명으로 반등했으나, 지난달 31만2000명으로 다시 떨어졌고 이번달 역시 27만2000명으로 증가폭 감소가 이어졌다.

특히 전문과학업 신규가입자는 1.9%(97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3월 통계 중 2013년 3월이

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제조업 역시 전체 가입자는 5만4000명 늘었지만, 내국인 가입자는 6개월째 순감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규가입자 27만2000명 중 외국인은 7만6000명(27.94%)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89.6%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인력을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역시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11만9000명에서 올해 1월 10만9000명→2월 8만5000명→3월 6만7000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든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순감소는 19개월째 이어지면서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감소폭도 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3만2000명→3만1000명→4만2000명→4만7000명→6만3000명으로 확대되다 지난달에는 7만7000명 감소로 그 폭이 더 확대됐다.

'경제 허리' 40대도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3000명으로 순감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취업난보다는 인구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50대는 11만6000명, 60세 이상은 20만7000명이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가입자도 4만8000명 늘었다.

한편 3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1000명으로, 교육서비스와 제조, 도소매,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3.3%)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명(3.0%) 감소했고, 지급액은 9696억원으로 638억원(6.2%)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3만4000명), 건설(3만2000명), 전문과학(2만6000명)에서 증가했다. 공공행정(-6만8000명), 도소매(-6만3000명), 교육서비스(-5만2000명)는 감소했다.

## 기재부, 유연근무 활용 기업 개인에 세제 인센티브 검토

기획재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활용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법인세, 소득세를 감경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기업 선택 기준 및 혜택 수준은 고용노동부가 개별 기업 상황을 들여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용부와 함께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광주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6월30일까지

광주은행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미리 특정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 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광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면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에 대해 해외송금 시 사용할 수 있는 환율 우대 90%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우대 혜택은 지난해 해외송금 이력이 없는 고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미화 1달러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면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외국환(App)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풀필먼트센터 준공**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8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에 포스코 풀필먼트센터(POSCO Fulfillment Center, 이하 PF센터)를 준공해 자체 조달체계 혁신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김홍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이동철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 사과값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떨어져...평년 수준 근접

### 배 10개 4.3만원...전년대비 62% 높은 가격대 유지

정부가 급등한 과일값 안정에 주력하면서 3만원에 육박하던 사과값이 한 달 만에 2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가격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2만4286원으로 전월보다 18.3%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4.6%, 평년보다는 2.6%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풀어 사과 납품단

가 지원을 kg당 기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등 할인행사를 지원한 효과가 분석된다.

사과 소매가격은 지난달 7월 3만원을 넘어서 후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넘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4만3312원으로, 전월보다 소폭(0.4%) 상승했다. 배 가격은 전년보다 62.2%, 평년보다 21.7%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딸기도 전월보다 20% 넘게 내렸다. 딸기(상품) 100g 소매 가격은

1285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2% 떨어졌다. 평년보다는 21.4% 높은 수준이다.

토마토(상품) 1kg 소매가격도 전월보다 16.9% 감소한 7517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달까지 직수입 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수입 과일 가격도 전월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바나나(상품) 100g 소매가격은 전월보다 17.2% 감소한 278원이다. 바나나는 1년 전보다 15.9%, 평년보다는 8.7% 싸다.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 소매가격은 1만5413원으로 전월보다 9.1% 하락했다. 오렌지는 1년 전보다는 2.8% 떨어졌지만 평년보다는 25.0% 비싸다.

##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분양 중

### 3천가구 이상 대단지 8년 만에 공급...1192가구 일반분양 인근 중외공원·운암산 주거환경 우수...초·중·고 다수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투시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지난 5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가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7가구 ▲59㎡B 457가구 ▲75㎡A 2107가구 ▲75㎡B 407가구 ▲75㎡C 1077가구 ▲84㎡A 907가구 ▲84㎡B 2607가구 ▲84㎡C 2247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23일 ▲3단지 24일 ▲1단지 25일이다. 각 단지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단지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쉽다.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접 운암도서관을 비롯해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단지 전면으로 이미 활성화된 근린 상권이 조성돼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동쪽으로는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중외공

원이, 서쪽으로는 운암산과 영산강이, 북쪽으로는 매곡산, 운암재 등 자연환경이 대거 위치해 있다.

특히 중외공원 내 아시아예술정원이 조성 예정(2024년 준공 예정)으로, 광주 예술의 전당,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과 더불어 광주 문화벨트를 형성, 각종 문화예술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충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시 250만원·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주택형(59㎡·75㎡·84㎡)에 청약 가능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 광주지역 유통업체, 경기전망 흐림

### 68% "알리·테무 대응안 무"...강구 중 4.3% 불과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먹구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81)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야외 소비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좀체 회복되지 못하면서 최근 4년간의 2분기 체감경기 중 유일하게 수치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다음 분기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업체들이 높은 소비자물가 지속

(38.3%)을 꼽았다.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상승(17.0%), 시장경쟁 심화(14.9%), 고금리 지속(12.8%),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8.5%)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백화점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은 모두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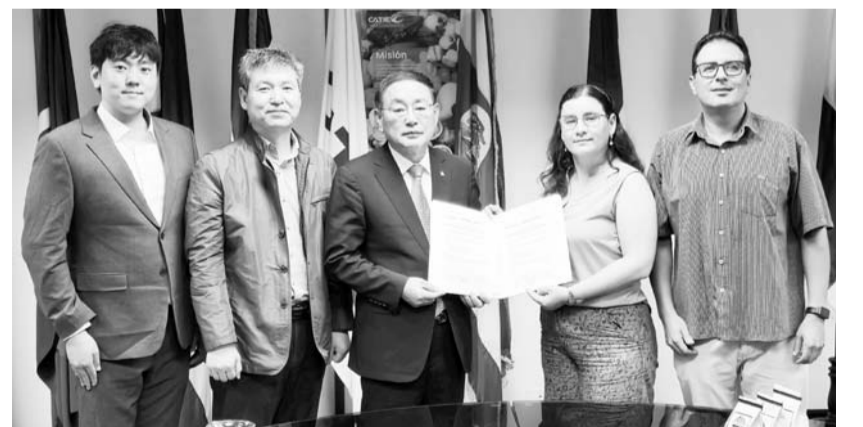
백화점(100→100)은 가전·가구 등 고가품 및 야외·레저용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체감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분기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도 백화점(100→100)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편의점(52→71), 슈퍼마켓(81→73)은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대형마트(100→75)는 전분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들의 68.1%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방안 강구 중 및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 전남농기원, 중남미 커피 연구 길 열어

### 코스타리카와 커피 재배기술 교류 등 3자 간 업무협약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코스타리카에서 중남미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FIE)와 커피 연구교류 등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커피 유전자원 교류 ▲협력 연구프로젝트 발굴 ▲협력 훈련 프로그램 실시 ▲커피 재배 기술 교류 ▲인력교류와 회의·워크숍·세미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농기원은 중남미 커피 유전자원 도입을 통해 전남 기후에 맞는 품종선발을 추진하며,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기반 디지털 농업기술을 전수 받는다.

연구용 커피 품종은 검역 등 절차를 밟아 올 하반기부터 들어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재배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기원은 2022년 커피를 지역특화 집중 육성작목으로 선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기반 구축과 재배·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협력도 실질적인 재배지의 기술과 유전자원 도입을 위해 이뤄졌다.

박홍재 원장은 "이번 MOU가 단순한 협약을 넘어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남이 (K)커피-커피를 선도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